

주일의 말씀

십자가는 하느님 정의와 자비의 만남

손무진 사도요한 신부
두류성당 주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교서 ‘제삼천년기’에서 “모든 회년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에 기초한 기쁨, 회개의 기쁨입니다” (32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용서하시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회개의 기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들킨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과 한 판 승부를 벌이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트리려고 한 여인의 수치심 따위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요한 8,4)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에는 그들의 이중적인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쳐라’ 하신다면은 사형권한이 없는 유대인으로서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비’는 위선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돌려보내라’ 고 하신다면은 모세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경우에도 그들의 술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 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하늘의 지혜로움으로 이 난관을 넘어서 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 8,7)

죄 있는 자는 그 누구도 함부로 이웃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

는 방법으로 ‘정의와 자비’의 완전한 조화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들부터 돌맹이를 떨어뜨리고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의를 무시하고 자비만을 이 여인에게 드러내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녀의 죄 값을 치룰 것입니다. 즉, 그녀를 대신해서 단죄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보고서 석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깨어진 석판위에 당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루실 미래의 결과를 이 여인에게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죄 값을 대신한 주님의 십자가는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의 절묘한 만남입니다.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은총의 시기입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의 해방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한 8,36) 용서를 통하여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이 시기에 만납시다. 아멘.

생명의 말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요한 8,7참조

이사 43,16-21 필리 3,8-14 요한 8,1-11.

십자가 위에 있는 이상한 글자, I·N·R·I...이게 도대체 뭐지?

교구 사목국

십자가 위에 붙어
있는 작은 글씨-INRI...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행해졌
던 잔인한 사
형도구였습니
다. 아시죠?
십자가형으로
죄인을 처형 할
때에는 죄명을 적은
명판을 십자가 위에 부착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로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명을 적은 명판을 십자
가에 부착시켰다는 기사가 성경에 잘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임금 예수”(마태27,37),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요한19,19)로 되어 있습
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은 명패 앞에
다 “자칭”이라는 말을 덧붙일 것을 요구했지만(정
말로 찜찜하죠? 사람을 억울하게 죽여 놓고선...) 빌
라도가 한번 쓴 것은 고치지 못한다고 거절했다
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요한19,19)를
라틴어로 쓰면 “Iesus Nazarenus Rex Iudaeorum”이
되는데요, 여기서 단어의 첫 글자만 취하면 INRI
가 됩니다. 아하~! 이제 INRI의 뜻을 아시겠죠? 맞
습니다. 정답은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입니
다. 짹짹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명패를 어떤 마음으로 달았
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
고자 이 명패를 단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인 우
리에겐 어떻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작은
명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백하게 하는 신앙고백서가 되
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
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
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
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
다.”(필리 2,8-9)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14,6)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순종과 사랑과 희
생의 길- 그 길은 곧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13,15)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위에 적힌 작
은 글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삶의 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묵상하는 은총의 사순절 되시기 바랍
니다. 

누구에게나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사순 제5주일

입당성가

119 주님은 우리 위해

화답송

◎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봉헌성가

514 주여 대령했나이다

영성체송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파견성가

124 은혜로운 회개의 때

영성의 향기

:: 아래로 내려가는 삶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는 심판과 처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자비의 관계입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 얻어지는 하느님 체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을 닦도록

힘을 제공하여 줍니다. 이 하느님 체험은 늘 새로움으로 다가오며 동시에 하느님께 응답할 수 있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 변화란 인간의 기원이자 목적이신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이해하고 생활에 적응시키고 적응시킨 것에 책임을 지고 사랑에 머무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하느님과 일치를 못하는 어떤 장애가 있다면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없애야만 합니다. 회개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에서 최초의 회개의 순간은 세례성사 때이며 두 번째 회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거쳐 가난한 사람과 고통 받는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도록 협조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인간의 신비를 밝혀 주시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대를 이은 연약



신앙심이 깊은 한 할머니가 평생 성경을 읽으며 마음에 와 닿는 말씀에 연필로 표를 해두곤 하였습니다. 성경에 표시가 많아질수록 할머니의 신앙심은 자라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딸에게도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 딸은 '말씀의 상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면 조그맣고 뾰뚱한 종이에 써서 말아 그 상자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마다 그녀는 상자에서 말씀이 적힌 종이를 한 장씩 꺼내서 읽고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할머니의 손자는 장성하여 사업을 위해 몇 년간 외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왔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상자에서 말씀이 적힌 종이를 한 장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꺼내서 읽은 말씀이 자신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적절한 말씀임을 발견하고 놀라곤 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시작된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의 손자에게까지 대물림 된 것입니다. 

- 옮겨온 글입니다. -

안중근(토마스) 의사 순국100주년 추모미사
• 일시: 3.26(금) 10:00, 국립대구박물관 대강당
• 미사집전: 조환길 타대오 주교

★ 모임 · 행사 ★

사순절 전례와 반주(255-4847)

• 일시: 3.21(일) 15:00, 장소: 대구가톨릭음악원
• 강사: 오르가니스트 박수원(현악중, 연애대, 가톨릭음악원출강)

가톨릭미용인회 빛모임

• 일시: 3.22(월) 20:00 요안나미용학원
•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성모당 전대사 미사

• 일시: 3.25(목) 14:00, 교해성사 13:00

★ 성소모임 · 피정 ★

비뇨의성모기도회 주님의 영보축일 33일 봉헌예식

• 일시: 3.25(목) 10:00
• 장소: 삼덕성당 427-7543

사랑의 씨앗 수녀회 성소 모임

• 일시: 3.28(일) 14:00~17:00
• 장소: 하양 수녀원
• 문의: 062-571-3004 / 010-5705-5004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성소상담

• 일시: 매일 08:00~17:00
• 문의: 622-4408(camelg@hanmail.net)
• 매월첫토요일저녁기도와목상기도에초대합니다(오후시)

천주성리수녀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일시: 3.28(일) 14:00, 장소: 성당성당 수녀원
• 문의: 010-3940-3635 / 626-6213

※ 성소상담 언제든 가능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피정(2시시작 2시끝)

• 일시: 4.19(월)~21(수) / 5.14(금)~16(일)
• 지도: 최봉도 신부, 대상: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 장소: 경북 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 문의: 054-971-0722 / 010-5613-1762
• 책대로 치유를 많이 체험하였다면 피정이 아주 보람될 것임

전교가르멜수녀회 사순 대침묵 피정

• 일시: 3.26(금)~28(일), 장소: 부산 청원소
• 대상: 젊은 미혼여성, 피정비: 3만원
• 문의: 010-9962-7334(www.camis.org)

사순 겹세마니 피정

• 일시: 3.27(토) 15:00~28(일) 15:00
•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대구(현충로 2번출구)
• 대상: 미혼여성(34세 미만)
• 신청: 010-2649-2045

예수회 성소모임

• 일시: 4.3(토), 17(토) 16:00
• 장소: 예수회 센터, 문의: 010-7197-7400

가족 피정·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 1차: 5.1(토)~2(일) 1박2일
• 2차: 5.8(토)~9(일) 1박2일
• 문의: 연화리피정의집054-973-4835 / 011-542-4835

★ 모집 · 교육 ★

통합예술치료사 자격증과정모집

• 일시: 3월 9:30~12:30
• ORPT 대상관계부모교육 마음편 모집
• 일시: 3.15(월) 9:30~12:30
• 문의: 794-6022
• 주최: 푸른평화 예술치료 상담센터

대안 성당 사순특강

• 일시: 3.29(월) 09:30
• 주제: 신앙 생활의 위기
• 강사: 김길수(사도요한) 교수
• 미사: 최홍길(레오) 신부
• 문의: 017-501-9713

본당사회복지학교(기초과정) 개강

• 교육기간: 4.5~26(매주 월) 13:00~17:00
• 장소: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교구청 교육원가동)
• 접수기간: 3.22(월)~31(수) / 255-7221~2
• 교육비: 3만원(교재비포함)
• 대상: 본당사회복지활동과 자원봉사에 관심있는분

제2기 성지 안내봉사자 교육

• 일시: 4.18(일)~7.10(토), 수강료: 5만원
• 내용: 교회사(서양, 중국, 일본, 한국), 안내방법론, 실습
•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대구Se. 제15차 레지오 마리아 학교

• 일시: 4.8~6.10(매주 목) 10주간
오전 반(목): 10:00~12:00
오후 반(목): 19:30~21:30
• 장소: 가톨릭교육원 나동 4층 대회의실
• 문의: 256-3574 / 250-3170

파스카청년성서모임 팀모집

•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 문의: (평일 14:00이후) 255-1582

윤일공부방 (초등전담) 교사 모집

• 자격: 대학교 재학생 또는 주부
• 시간: 16:30~18:30(월~금), 문의: 552-4959
※ 4~5명의초등학생학업을 전담지도하실분을찾습니다.

환경위원회 수강생 모집

• 명상제2반(결태극권)2개월과정, 주2회(시간:관원(화,금)
• 친환경제품만들기기반1개월과정, 1만원(목)
• 일시: 매월 둘째주 개강 14:00~16:00
• 장소: 교육원 가동 206호 환경위원회 사무실
• 문의: 253-3655 / 010-5250-3523

★ 안내 ★

국내입양전문기관(해성보육원)

•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운영
• 입양상담 및 미혼모 상담
• 문의: 032-875-3240 / 874-3240
• 홈페이지: www.hschild.or.kr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 일시: 3.23(화) 14:00 신암성당
19:30 포항 연일성당
3.24(수) 14:00 성토마스성당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구미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3월 22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3월 23일(화) 오후 2시	성모당
4대리구 포항지역			비뇨의 성모기도회 미사	3월 25일(목) 오전10시	삼덕성당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22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공소후원회 미사	3월 27일(토) 오전11시	남산성당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약기(바오로) 011-514-3855

밝은 눈 안과

원 장 임종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당일수술 · 퇴원 초음파백막장 · 라식수술

수술전문병원

달성과 맞은편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아가다 노인복지센터

아가다복지용구사업소
요양보호사 교육생모집(시지, 경산 전지역 지방요양)
복지용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 · 야간보호
고 팔홍(안드레아) · 박성자(아가다)
☎ 시지점 795-4242, 경산점 815-2700

미소인치과

원 장 이 중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 나)
범어네거리 교원공제회관 건너편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752-7575
(화 · 목 ▶ 야간진료)

20년 역사의 SHINCHUN이 운영하는

DINE ONE
나만을 위한 최고의 식사 多人園

단체급식 / 출장연회 / 프랜차이즈
www.shinchun.co.kr 문의 ☎ 956-9900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결혼상담

27년 전통의 성가정을 위한 만남의 장
성심결혼
558-3003, 644-4007
비산네거리(서부 초등학교 옆)
류성실(마리아) · 함(논나)

백신정외과의원 정형외과

(척추 · 관절염 및 뇌 · 신경전문의원)
○ 요통, 좌골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 뇌졸중, 어지럼증: 손발저림, 골절
☎ 628-4111, 4110(백운일(스테파노))
(성당시장네거리 확장이전)